



## 관내 동향

### □ 사천시, 항공제조산업 기반 유지 위해 42억 예산투입

- 사천시가 항공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
- 시는 우선 보잉B737 Max의 운항 중단, 민항기 제작수요 급감과 항공기 운항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항공기업 회복을 위해 42억 예산 투입
- 항공기 복합재 부품 분석 시스템 구축에 16억, 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 지원에 6억, 항공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에 3억 등 9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계획 임.
- 또한 항공제조산업 장기 유급휴가자 6,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 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시범사업에 6억 원을 투입하는 등 항공부품업체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
- 송도근 사천시장은 “국가산단 조기 분양을 위한 용자, 마케팅 전략 수립과 함께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등 올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할 확실한 앵커도시로 만들 것”이라고 밝힘

### □ KAI, 완성형 항공기 체계통합 계약 체결

- 한국항공우주산업(KAI)이 국방과학연구소와 12월 31일 Link-K(완성형) 항공기 체계통합 계약을 체결, 계약금액은 1,400억 원 규모며 납품은 2024년 11월 29일까지임
- Link-K(완성형)는 한국군이 현재 수행 중인 육·해·공 합동작전에 최적화 하여 다양한 무기체계를 지상·해상·공중 합동전력 간 실시간으로 전술 정보 및 상황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운용체계

- KAI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중인 링크K(완성형) 단말기를 공중통제기(KA-1), 소형무장헬기(LAH) 각 2대에 체계통합을 하며, 링크K(완성형) 기능·성능 확인을 위해 개발시험·운용시험평가 지원 및 항공기 개조 분야에 대한 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 업무를 수행



공중통제기(KA-1)

- 길이 : 10.26 m
- 날개폭 : 10.60 m
- 높이 : 3.67 m
- 자체중량 : 2,040 kg
- 최대속도 : 500 km/h
- 항속거리 : 1,688 km
- 실용고도 : 11,580 m



소형무장헬기(LAH)

- 전장 : 동체(12.71 m)  
날개 포함(14.5 m)
- 전폭 : 3.87 m
- 전고 : 4.415 m
- 순항속도 : 278 km/h
- 최대속도 : 324 km/h
- 항속거리 : 857 km

## □ KAMES 제주항공 항공기 6대 정비계약, 새해 첫 수주

- 한국항공서비스(KAMES)가 제주항공과의 계약으로 새해 첫 정비물량수주
- KAMES는 지난 1월 6일 제주항공과 B737-800 항공기 6대에 대한 정비계약을 체결, KAMES는 아울러 티웨이항공과도 동일한 기종의 추가 수주를 협의
- KAMES는 지난해 매출기준 전년 대비 238% 성장, 지난 2018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, 올해는 수리온 3대 정비 등을 기점으로 총 75대 정비를 맡을 예정



## 도내 동향

### □ 경남테크노파크, 한·중 항공 온라인 상담회 성과

- 경남테크노파크(경남TP)는 KOTRA 중국시안무역관(관장 김준기)과 공동으로 ‘2020 한·중 항공산업 협력포럼’을 온라인으로 개최해 총 24건, 4315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
- 상담회에 참가한 씨엔리(주) 해외영업담당 경병순 과장은 “코로나19로 인해 세계 항공시장 공급망이 바뀔 것에 대비해 최근 경남TP에서 주관한 해외 마케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고 국가별 BtoB 미팅이 새로운 시장발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”고 밝힘
- 경남TP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지난해 2월 ‘2020 경남항공산업 타깃 마케팅’을 시작으로 7개 행사에서 전체 5억 95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림



## 국내 동향

### □ 코로나 직격탄에 작년 항공기 29대 줄었다

-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들이 지난해 항공기를 전년대비 29대 (약 7%) 줄임
- 1월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항공사 9곳이 보유한 항공기는 383대로, 지난 2019년 총 412대에서 약 7%(29대) 감소한 수치
- 대한항공은 지난해 159대로 전년보다 10대가 줄었으며, 같은 기간 아시아나 항공도 86대에서 82대로 4대 줄어듦
- 항공기는 운항을 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고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비용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 됨

## □ 항공업계,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기대보다 저조한 흥행

- 국내 항공업계가 선보인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상품이 기대보다 저조한 성과를 냄
- 1월 10일 업계에 따르면 12월 12일~1월 2일 국제 관광비행 1차 운항 기간에 16편이 운항, 당초 26편이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하면서 운항편이 절반가량 줄어들음
- 업계에서는 탑승률이 70%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1차 운항 기간 평균 탑승률은 49%, 총 3104석이 공급됐으나 1520명만 탑승
- 지난달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관광비행 공급과 수요가 모두 계획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임



## 해외 동향

## □ 물류기업 코로나 백신 특수, 백신 이동 시작

-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면서 전 세계 각국으로 백신을 운송하기 위한 글로벌 물류기업들이 특수를 누릴 전망
- 미국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글로벌 물류기업인 퀴네앤드나겔가 전 세계 운송을 담당, 모더나 이외에 화이자, 얀센,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전 세계에 공급할 백신 물량이 수십억명 분
- 퀴네앤드나겔은 유럽에 기반을 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공급망을 전 세계로 확대할 계획으로 유럽, 아시아, 중동, 아프리카 및 일부 미국 지역 시장에 이 백신을 유통·공급할 예정
- 한편 오는 2월부터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으로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유통 및 보관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

## □ 보잉B737 MAX, 약 2년만에 미 정기 운항 재개

- 보잉737맥스는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두 차례 추락사고로 2019년 3월 이후 운항이 중단돼 옴
- 미 연방항공청(FAA)은 2020년 11월에야 737맥스 운항재개를 허가
- 미국 보잉의 737맥스 항공기는 추락 사고에 따른 오명을 딛고, 2020년 12월 29일(이하 현지시간)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정기 운항을 시작
- 2021년 2월 중순에서 3월초 사이에 737맥스 운항 편수를 최대 91회까지 끌어올릴 방침

작성일	2021. 1. 13.(수)	보고일	2021. 1. 18.(월)
부서명	항공경제국 우주항공과	담당자	오은미(055-831-3470)